

## 쇠퇴해 가는 우주



세속 과학에서 지배적인 철학은 유물론(또는 자연주의)이다. 자연 혹은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전부라는 이 관점은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과학 법칙들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시작을 가졌어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연계를 만든 초자연적 존재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남는 유일한 선택지는 자연이 자신의 과정과 속성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뿐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진화'의 핵심이다. 그것은 단순히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이다. 세속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놀라운 복잡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작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신)다윈주의를 즉시 버릴 것이다.

### 유물론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아무도 이 세계가 완전히 기능하는 상태로 갑자기 '툭' 하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무(無)에서 자연으로'의 발전 과정은 복잡한 것들이 더 단순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 창조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그럴듯해 보이려면 단순한 시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들은 가장 단순한 화학 원소인 수소로부터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어디를 보든 단순한 것이 점점 더 복잡한 것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관측 결과들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별들이 핵연료를 소모하며 서서히 죽어 가고, 일부는 생애의 마지막에 폭발하는 모습을 본다. 이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오래전에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열역학 법칙들은 우주 전체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더 무질서해지며, 더 균일한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결국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물론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전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개입이 없다면 말이다.) 우주가 결국 **열적 죽음(heat death)**이라 불리는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된다.** (1)

이처럼 끊임없이 진행되는 하향적 경향은 우주가 점점 더 발전해 왔다는 이른바 ‘우주 진화’의 상승적 방향성과 모순된다. 이 모순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은 과거에는 이러한 법칙들이 오늘날과 다르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과학을 버리고 맹목적인 믿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2025년 말,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두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200만 개 은하의 성간 먼지(stardust) 열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물론 이 자료로부터 도출된 해석은 시간과 별의 형성에 관한 진화론적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지난 약 ‘100억 년’ 동안 우주는 전반적으로 계속 식어 왔으며, 점점 쇠퇴해 왔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한 기사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뿐이다.”(2) 이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상태로 창조된 우주가 결국 “옷과 같이 변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히브리서 1:10-12)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 참고문헌 및 주석

1. Bailey, J., World Winding Down: A further tool for building up believers, [creation.com/winding](http://creation.com/winding), 1 Jul 2010.

2. Specktor, B., 'The universe will just get colder and deader from now on': Euclid telescope confirms star formation has already peaked in the cosmos, [livescience.com](https://www.livescience.com), 11 Nov 2025.

**ROBERT NIEMAND** is a pen-name for occasional articles produced by the corporate efforts of Creation magazine's editorial team.